

'6년 공식' 亞문화전당장 아특별법 시행 맞춰 9월 임명

국가 기관 지위 확보...지위 협의 뒤 공모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6년째 공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 절차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9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통과된 아특별 개정안 시행에 맞춰 1대 문화전당장도 임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또 아시아문화원과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흡수하고 '문화전당 재단'을 신규 설립하

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특별 개정안 시행은 오는 9월23일경 문화전당은 시행일에 맞춰 1대 전당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흡수에 따른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었던 당장도 임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전당은 6월까지 조직안과 전당장 지위 등과 관련해 정부 등과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임명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은 TF를 구성하고 매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전당장의 지위도 기존보다는 상향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정도면 조직 개편안과 전당장의 지위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며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까지 6년동안 전당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그동안 5차례 전당장 공모가 진행됐지만 내정설,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규정돼 지역사회 반발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윤희기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자단 위촉식 개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이겸)은 지난 27일 지역 평생학습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평생교육 문화 확산 역할을 수행할 '제5기 웹진 기자단'과 '제1기 SNS 기자단' 위촉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기자단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며, 서류심사와 화상면접을 거쳐 웹진기자단 9명, SNS 기자단 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2022년 2월까지 1년간 웹진과 다양한 SNS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 소식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웹진 기자단은 진흥원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웹진 '무들씨의 마르지 않는 샘' 제작을 위한 취재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제5기 선발을 맞이한 웹진 기자단은 대학생, 전직 기자, 직장인, 주부 등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이력과 연령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생한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기자단은 다변화하는 뉴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맞게 색다른 콘텐츠 개발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고 SNS 매체를 활발히 운영 중인 시민들로 구성된 제1기 SNS 기자단은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역량 강화 특강에서는 (사)광주평생교육사협회 김종환 사무처장의 '평생교육 개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이소영 프리랜서 취재기자의 '좋은 글쓰기'를 주제로 한 생생한 강의가 제공되어 기자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격월로 발행하는 웹진 '무들씨의 마르지 않는 샘'은 2016년 8월 창간해 총 24호를 발간했으며, 전국 4,000여 명의 독자가 무료 구독 중이다. 또한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평생교육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유튜브)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김이겸 원장은 "1인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홍보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동구,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광주 최우수구 선정

광주 동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1억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자원순환 문화조성 ▲재활용증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폐기물처리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해 '쓰레기 없는 마을'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쓰레기 15% 감량을 목표로 향기 나는 정원 15개소 조성, 청결모범업소 72개소 지정, 36개 기관 참여 1기판단제 1청결구역 관리 등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청소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서구공공도서관 내달 12~18일 도서관 주간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침포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기탐구생활을 쓴 최미나 작가의 '나를 알아가는 책'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미니화분 심기, 디퓨저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원화 전시와 잡지 나눔 등의 행사도 진행 된다.

남구, 4월부터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들에게 생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2021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탐방로는 제석산을 비롯해 최근 새 모습으로 돌아온 분죽산, 금당산, 제봉산, 월산근린공원 인근 달포 자연마당이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참가 접수를 해야한다.

남구는 참여 인원 10명당 생태문화 해설사 1명을 지원하며, 참여 기관의 요청 및 참여자 특성을 감안해 생태문화 해설사 지원 인력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북구,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코로나19 극복 지원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컨설팅 사업은 20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60개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했다.

북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구 종합컨설팅 이용자의 폐업률(6.5%)은 전국 평균 폐업률(11.7%) 보다 더 낮고 매출액 증가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 컨설팅 참여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자조모임으로 난임 극복한다

광주 광산구가 마련한 난임 여성을 위해 마련한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기'(이하 '함소공')이 내달 6일 막을 올린다.

함소공은 난임 여성들의 자조모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가 가장 힘들어 한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으로 꼽았다.

함소공은 단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 난임 여성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컬러·아로마 테라피, 영양 약선요리 배우기, '마음건강 주치의'와 연계한 소그룹 토크 등을 매월 2회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행덕기자

전남도, 해상풍력 업체 등 3개 기업과 1150억 투자협약

세아제강 순천공장에 800억원 규모 증설

윈드에너지 풍력·박셀바이오 항암 치료



전남도가 29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인 세아제강 등 3개 기업과 1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아제강은 울진산단 순천공장에 800억원 규모의 증설을 통해 둘레 8m, 길이 100m에 이르는 원통형 관관 하부구조물(Mono-pile) 생산체계를 갖춘다.

세아제강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해상풍력 하부구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 총 36만5000㎡ 부지의 순천공장에서 제작한 철탑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프랑스와 대만에 수출하고 있다.

윈드에너지는 나주 신도산단 3000㎡ 입지에 50억원을 투입, 공

장 지붕 등 도심에 설치 가능한 소형 수직풍력 발전기 제조 공장을 전국 최초로 설립했으며 협약에 따라 생활속 풍력발전 전담 브랜드화 구축에 나선다.

박셀바이오는 화산 생물의약품업단지 1만3000㎡에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생산 설비단지를 조성한다. 박셀바이오는 항암면역 치료제 대중화를 목표로 전남에서 성장한 업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기업 보조금 최대 1000억원, 기반·편의시설 지원 등 전국 최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하고 올해 초 투자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현재까지 741개 기업과 19조184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택트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